

독도에세이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20209 김지현

나의 관심분야는 국제기구, 외교, 환경 쪽이다. 외교에 관심을 가지다보니 자연스레 독도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중학교 때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에 대해, 독도의 자연환경에 대해,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독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뉴스를 보았고, 일본과의 외교관계에서 독도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뒤로 꼭 독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다. 고등학교 2학년 초에 국제동아리(소하유엔)에서 외부강연자를 초대하여 강연을 준비했었던 경험이 있다. 그 때 우리학교에 오신 분이 반크의 박기태 단장님이셨다. 사실 독도나 반크에 대해 관심이 많이 없으면 학교친구들이 강연을 많이 들으러 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나의 정말 크나큰 착각이었다. 작은 소강당의 좌석이 꽉 찼고, 자리가 없어 다른 의자들을 옮겨 가져왔고, 자리가 없어 서서듣거나 그냥 바닥에 쭈구려 앉아 듣는 학생들도 여럿 있었다. 나도 끝까지 정리를 하다가 꽉 찬 소강당 맨 뒤 의자에 앉아서 들었다. '이렇게 꽉 찼을 줄 알았으면 대강당에서 하는건데..'라고 생각하며 강연에 집중했다. 반크라는 사이트에 대해 어느정도는 알고있는데 강연을 통해 반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박기태 단장님은 어떤 사람인지, 반크를 만들 때 힘들었던 경험, 지금은 청소년 참여형 사이트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그냥 컴퓨터에서 찾아보는 정보가 아닌 지금 이순간 아니면 못 듣는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다. 그 강연을 듣고 '나도 뭔가 해보고싶고, 해내고싶고, 무언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쿵쾅거렸다. 그래서 그 날 이후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찾기 시작했다. 독도 글짓기 대회도 찾아보고, 독도 탐방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되게 다양하게 찾아봤었던 것 같다. 그러던 중에 <독도체험 발표대회>라는 대회를 찾게 되었다. '딱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100일동안 독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며 독도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알고 독도사랑의 힘을 기를 수 있는 것! 정말 좋은 목적이었고, 독도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과 하면 좋을 것 같아 같이 할 사람을 구하러 다녔었다. 동아리에서도 물어보고, 평소 나와 진로가 비슷했던 친구나 관심도가 비슷한 친구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하며 3명의 친구들을 만나게되었다. 1명은 나와 같은 반 친구이고 독도에 대해 관심도 있고, 직접 독도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 친구이고, 다른 한 명은 같이 동아리를 하며 친해진 친구이고 같이 한다고 해서 들어왔고 나머지 한 명은 1학년 친구이다. 이 친구도 진로가 외교 쪽이고 독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같이 활동할 팀원들이 구성되었다. 사실 이렇게 내가 계획하고 기획하고 그랬던 적은 많이 없어서 활동하기 전에 불안감이 조금 있었다. '처음엔 잘 하다가 중간부터는 활동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어떡하지...100일동안 매일 만나기는 어려운데 독도에 대해 많이 알 수 있을까?'라는 걱정부터 앞섰던 거 같다. 다행히 모두들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을 했다. 물론 처음에 계획했던 활동들 중에는 못한 것도 있다. 시험기간이 겹치기도 하고 사실상 다들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 외부활동으로 외국인에게 독도에 대해 홍보하고 소개하기는 빠지로 결정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말이다. 100일이라는 시간이 되게 길 줄 알았는데 벌써 이렇게 지나온 것을 보니 100일이 어떻게 지나갔을지 모를정도로 짧게 느껴진다. 100일전과 비교해보면 나를 포함해 다들 독도에 대한 관심도는 더 커진 것 같고, 전보다는 알게된 점이 많아졌다고 얘기를 했다. 우리의 주제는 자연환경이지만 자연환경만 잡고 조사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조사하고 토의했

다. 예를 들어 독도의 지리적 위치나 왜 독도가 우리 땅인지, 독도 바다 밑의 무수한 자원 중 하나인 메탄하이드레이트부터, <독도는 우리땅>노래가사가 바뀌었는데 가사를 같이 수정해보고 노래를 부르고, 독도 책들도 읽으며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도 갖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독도에 관심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홍보지도 만들어 게시판에 붙였었다. 물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우리의 홍보지를 봤을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홍보지가 다른 학생이 한번 읽고 “아~그렇구나. 아 독도는 이런 곳이구나, 어! 이건 몰랐었는데 이렇구나~”라고 느끼며 도움이 되는 한 학생만이라도 있으면 우리의 홍보지는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홍보지가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독도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게 만든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도 없을 것이다. 물론 참여형 활동으로 독도퀴즈라는 것을 만들어 학교 게시판에 붙이고 문제를 풀어오는 학생들 한해서 소정의 상품을 줄려고 계획했었는데,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었다. 시험기간이기도 하고 다들 독도퀴즈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 게시판을 주의깊게 살펴보지 않음을 알게되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활동을 할 때는 홍보를 열심히 하고 학급 게시판이 아니라 반에 독도 퀴즈 문제를 돌리기로 의견을 냈다.

독도체험 발표대회는 끝났지만 우리의 독도활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율동아리로 연계해 활동하고 있고, 2학기때는 1학기때 못했던 활동들을 하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생각이다.

<독도체험 발표대회>는 나에게 참 의미있었던 잊을 수 없는 활동이다. 내가 주체적으로 조직했고, 이 대회는 나의 도전이었다. 고등학교 생활이 행복하지만은 않고 힘든데 팀장으로서 팀원들과 함께 나갈 수 있는 리더쉽과 힘을 배웠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주기도 했고, 나의 진로에 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활동할 때 행복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고등학교2학년 때 열심히 했다는 경험과 기억 그리고 추억을 줘서 더 의미가 있었다. 독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독도는 우리의 영토이자 지켜야할 땅이니까. 외교부도 독도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독도는 일본땅이 아니라 한국땅임을 정확히 알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고 활동해나갈 것이다.